

2005년 학회 일을 마치면서...



십여년 전 용어제정위원으로 입문한 학회 일을 이제 전무이사로서 졸업을 하려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 아쉽고 모자랐던 점들만 더 크게 기억이 나고, 필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서 기꺼이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새삼 고맙습니다. 일 년 전 의욕과 걱정이 섞인 긴장 속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춘계, 추계 학회를 모두 학교가 아닌 시설을 임대하여 치루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 꼭 임대료의 부담 때문은 아니지만 학회의 재정에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의 행사를 더 기획하고 있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경련회관에서 있었던 춘계 학회는 장소가 좁아 부쩍 커버린 우리 학회의 몸집을 다시 실감케 해주었지만 큰 불편 없이 치러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회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추계 학회는 발표논문 수와 등록자 수가 전의 기록을 크게 뛰어넘는 성황을 이루어 소위 ‘제주도효과’를 실감했습니다. 춘추계 모두 성공적인 기업설명회와 기기전시회가 되게 해주신 최형기, 이재홍 산학협동위원장, 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고분자토론회와 산학연심포지엄은 예년과 같은 정도의 참여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학·연심포지엄은 금년에 우리 학회가 주관이라 한화석유화학, LG화학, 삼성토탈, 삼양사의 후원도 얻고 하여 많은 준비와 투자를 하였으나, 참석자가 그리 많지 않아 학회로서는 약간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지만 참석자들은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분자아카데미와 고분자기기분석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수강자 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면서, 윤호규 교수님과 최길영 박사님께는 죄송하지만 개회 장소까지도 고정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금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 중 고분자신기술강좌는 학회 하루 전에 같은 장소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워십 강의를 한다는 의도인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주제의 선정에 따라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 다 애써 주신 분자전자, 의료용 부문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새 사업인 고분자특성분석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석기기에 대해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실습과 병행하여 강의할 목적으로 KIST의 도움을 얻어 시행해 보았는데, 기기의 선정이나 효율적인 실습 등 더 연구가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학회는 예산, 발표 논문 수, 학회 참가자 수 등 외형의 큰 팽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언제까지 무리 없이 지속될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 학회도 내년이면 서른 살이 되는데 속도조절과 내부 정비도 해가면서 발전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학회 행사 진행 중 꼭 한 가지 고쳐쳐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포스터 세션에서 여러 가지 반칙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에 게시하지 않거나, 발표시간에 자리를 지키지 않거나, 미리 떼어 가버리거나 등입니다. 춘계에는 이런 포스터들의 번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데, 그 효과인지 추계에는 위반 포스터의 수가 약간 줄어든 듯 하여, 그 실명을 공개하려 하였으나 운영이사회 결정으로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인 교수님들이 포스터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한 번 씩만 점검해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줄고는 있으나 저자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도 역시 교수님들의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분자기기분석까지 모든 행사를 끝내고 나서 학회 사무실의 부속실을 창고에서 자료실로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욕심 내어 하다가 하마터면 금년 결산이 적자를 기록할 뻔 하였습니다. 긴급 광고유치로 다행히 적자는 면하였지만 다음 운영진에 잉여금을 넉넉히 남겨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금년의 학회 운영이 큰 문제없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모든 회원들의 학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힘이 가장 크며, 그에 못지않게 헌신적인 운영진의 노력이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필했어야 할 회장님께서 오히려 제가 해야 할 일을 제일 많이 도와주신 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수석부회장님과 총무이사께서도 미리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금년의 운영이사들은 거의 프로에 가까운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힘이 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자가발전하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패키지로 끝내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운영이사회 회의가 골치 아파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기분입니다. 모든 운영이사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씩씩한 사무국의 미녀삼총사께도 감사 인사를 해야 할 텐데, 마지막까지 추운 날 창문 열어놓고 창고 정리하게 해드려 죄송하기부터 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온통 뒤숭숭한 세밑이지만, 새해에는 우리 고분자학회 회원들께는 더욱 힘찬 도약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조재영>